

'1만명 동시 투약분' 마약유통 일당 검거

광주경찰, 3억 7000만원 상당 마약류 밀반입 유통책 4명 구속 베트남서 구입한 마약, 속옷에 숨겨 공항 검색대 유유히 통과 지역 유흥업소 등에도 판매 정황... "유통 경로 수사 확대 방침"

속옷 등에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들여와 유흥주점 등에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달미가 잡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5일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몰래 숨겨 들여와 지역 내 유흥주점 등지에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상 밀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마약류 밀반입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도 구속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13차례에 걸쳐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 900정, 케타민 410g

등 1만 명이 동시 투약할 분량의 마약류(3억 7000만 원 상당)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동내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베트남 현지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마약류를 소량 포장한 뒤 속옷 등에 숨겨 입국, 국내 투약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광객으로 가장, 미리 소분한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들어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들어온 마약을 익명 메신저 앱으로 만난 투약자에게 '던지

기 수법'으로 판매했으며, 또 지역 내 유흥주점·클럽 등지에도 일부 마약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일당은 베트남 현지에서 구입한 것보다 4~5배보다 비싼 값에 팔았으며, 번 돈은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을 검거한 직후 차례로 케타민 42.9g, 엑스터시 144정과 현금 545만 원 등을 압수했다. 또 A씨 일당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

어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 등 관계 당국에도 공항 내 보안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광주경찰청은 마약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마약범죄 합동단속추진단(마약범죄TF)을 구성, 159명을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김상구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 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고자 유통 조직에 대한 첩보 수집,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면서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달부터 8개과·29개 팀 159명을 동원해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단속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유유나 기자



완도해경, 드론 이용해 법규위반 선박 단속 강화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 마량파출소는 마량항~고금도~조약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자체 드론을 활용한 법규위반 선박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고흥경찰, 관내 어린이집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지난 12일 10시경 고흥읍 소재 별이숲이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2023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5월 12일 전남소방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광양소방서 출전팀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 기자



광주 동부소방,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 운영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동구어린이집 한국119청소년단 대상으로 발대식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슬비 기자



담양소방, 전통사찰 합동 화재안전조사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해경, 지역 어린이들과 요트승선체험 행사 가져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여수 이순신 마리나항에서 제20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기념 하기 위해 지역 어린이들과 요트 승선 체험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잇단 강원 지진에...전문가들 "더 강한 지진 가능성도" 우려 커

'군발지진'으로 지역 단층대 약화 분석 대지진 전조 단정 어려워...가능성은 有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인근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면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꾸준한 단층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7분 37초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부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 규모다. 역대 한반도 발생 지진 중에선 22번째, 남한 발생 지진 중에선 20번째 규모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생한 지진을 포함해 최근 들어 강원 동해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들을 좁은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군발지진'으로 정의하고, 이 때문에 단층대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동해시 해역(이날 지진 진앙반경 5km 이내 기준)에선 지난달 23일 이후 약 3주간 총 13회의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규모 2.0 이하 지진까지 포함할 경우 3주간 지진 발생 횟수는 총 36회로 늘어난다.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 학부 교수는 "이번 지진 같은 경우, 지난달 말부터 규모 3.5, 3.1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러 작은 지진들이 이어진 군발 형태를 띤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군발지진의 발생 원인은 해당 단층면에 누적되었는 응력이다. 군발지진이 그 응력을 해소하는 과정인데, (지진 발생 과정에서) 단층면이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작은 지진으로 배출한 응력량에 비해 남아있는 응력량이 많으면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강원 동해 지역에 군발지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지진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홍 교수는 "이 지진으로 (해당 단층의) 응력해소가 충분히 될 것이냐, 아니면 남아있는 응력량으로 인해 더 큰 지진으로 발달할지는 단층 상태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김영석 부경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교수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으니 앞으로 (지진이) 증가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졌다"고 했다. 다만 김 교수는 "만약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규모 6 내외의 지진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결국 꾸준한 단층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결국 더 큰 지진으로 발달할 것이냐 아니냐는 단층 상태에 달려있기 때문에 단층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해역은

특히 관측하기가 까다로운 지역이다. 해저 지진계는 설치 자체가 까다로운 일인데 예산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며 "빨리 예산 지원 및 조사 등이 이뤄져야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도 "모니터링을 계속하며 어느 지역이 위험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제51회 성년의 날

15일 오전 울산 중구 울산항교 명륜당에서 '제51회 성년의 날' 기념 전통성년례행사가 열리고 있다.

절도범, 다이아몬드 못 알아보고 숲에 버려

경기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에서 도난당한 다이아몬드 20개가 동부간선도로 풀숲에서 발견됐다. 1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2시 50분경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인천에서 붙잡았다. A씨가 훔친 귀금속은 4000만 원 규모로 일부는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 주인은 A씨가 훔쳐 간 귀금속 중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0개가 든 보석함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물거래 목록이나 회수 품목에는 없었다. A씨도 자신이 훔친 귀금속에 다이아몬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명함으로 채워진 상자 하나를 의정부에서 서울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동부간선도로에 버렸다는 진술을 듣고 해당 경로를 수색해 도로 옆 풀숲에서 다이아몬드 20개가 든 상자를 찾았다. 최이슬 기자